

외국인들에 대한 조선어교육에서 토습득의 효과적인 방법

양 목 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말은 문법구조도 짚었습니다. 문법구조가 짚었다는것은 언어가 그만큼 발전되었다는것을 말합니다. 특히 조선말은 토가 풍부하고 다양하며 치밀하게 발달되었습니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권 102페이지)

풍부하고 다양하며 치밀하게 발달되어있는 토를 언어실천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토의 의미를 정확히 리해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조선어가 외국어인 경우에는 이 문제가 더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의 하나로 되고 있다. 외국어로서 조선어의 어휘와 토의 습득가운데서 어휘의 습득보다 토의 습득이 더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로 제기된다.

현실적으로 조선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류학생들의 경우를 놓고보아도 어휘의 오유보다 토의 오유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다음의 실례는 조선어를 배우는 류학생들이 지은 문장들이다.

례: ① 약속을 지킬수 없으면 미리 상대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어제 저녁 집에서 손님들이 많이 왔다.

③ 김동무는 노래를 부르더니 모두가 즐겁게 함께 불렀다.

④ 나는 조선어공부를 하느라고 조선에 왔습니다.

위의 실례에서 ①과 ②는 토의 기본의미를 잘 모르는데서 생긴 오유문이고 ③과 ④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토들을 정확히 선택하지 못하여 생긴 오유문들이다.

외국어로서 조선어를 배우는데서 어휘와 함께 토의 정확한 습득은 현실적으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이다.

외국인들에 대한 조선어교육에서 토를 정확히 인식시킬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첫째로, 토들이 나타내는 기본의미부터 먼저 리해시키는것이다.

조선어는 매 토들이 하나의 문장에서는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실지 각이한 언어 환경에서 매 토들이 나타내는 의미들이 다양한것으로 하여 그 여러가지 의미를 다 리해 한다는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제일먼저 간단한 문장들에서 매 토들의 기본의미에 대한 리해부터 정확히 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실례로 외국인들에 대한 조선어교육에서 조격토 《로/으로》는 《방향, 수단, 양상, 원인, 자격, 변화, 시간, 재료》, 접속토 《면서》는 《동시, 선후, 방식, 대립, 라렬》 등 여러가지 의미를 나타내는데 여기에서 조격토 《로/으로》는 《방향》의 의미가, 접속토 《면서》는 《동시》의 의미가 기본의미라는것을 정확히 인식시켜야 한다. (매 토들의 기본의미는 확률적인 방법으로 선택된것이다.)

외국인들에 대한 조선어교육에서 토를 정확히 인식시킬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둘째로, 매 토들이 나타내는 부차적인 의미를 2~3개정도로 정확히 리해시키는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선어에서 매 토들이 나타내는 기본의미는 하나이지만 부차적의미가 얼마이라는 제한은 없다. 많이 쓰이는 토들은 부차적의미가 5~6개정도이고 그외의 토들은 2~3개정도이다. 여기서 매 토들의 부차적의미를 리해시킨다고 하여 그 다양한 의미를 다 리해시켜야 한다는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조선어의 토를 기본적으로 습득했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이기때문이다. 따라서 토들의 기본의미와 함께 가장 많이 쓰이는 부차적의미를 2~3개정도에서 정확히 알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부차적의미에 대한 이해를 하자면 문장선택도 중간정도에서 하여야 한다.

외국인들에 대한 조선어교육에서 토를 정확히 인식시킬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셋째로, 매 토들이 나타내는 기본의미와 부차적의미를 기본적으로 정확히 파악한데 기초하여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 토들을 서로 정확히 이해시키는것이다.

매 토들이 나타내는 기본의미와 부차적의미에 대한 이해를 한 다음에는 서로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토들에 대한 이해를 품사, 비위치토, 말법과 인칭의 관계에서 그 차이점을 정확히 갈라보도록 하여야 한다.

우선 서로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 토들의 차이를 알기 위하여 품사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 그것은 품사에 따라 토의 1차적의미가 선정되기때문이다.

실례로 토 《고》는 1차로 용언에 붙고 2차로 체언에 붙는데 그것은 어느 품사에 붙는가에 따라 기본의미로 쓰일수도 있고 부차적의미로 쓰일수도 있기때문이다. 토 《고》가 용언에 붙는 경우에는 기본의미가 《선후》의 의미를, 체언에 붙는 경우에는 부차적의미인 《라렬》의 의미를 나타낸다. 여기서 《라렬》의 의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것이 부차적의미로 되는것은 토 《고》가 체언보다 용언에 붙어서 쓰이는 비율이 훨씬 높기때문이다. 따라서 동의적의미를 나타내는 토들에 대한 이해에서는 먼저 어느 품사에 붙는가를 정확히 아는것이 중요하다.

또한 비위치토들과의 관계를 잘 알도록 하여야 한다.

조선어에서 토들은 비위치토들과의 결합에 따라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토들도 서로 다른 의미로 쓰인다.

이것은 품사에 붙는 기본형태를 중심으로 앞에 올수 있는 형태부와 뒤에 올수 있는 형태부를 다같이 고려하여 토의 의미를 이해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대상적단어에 붙은 기본형태부인 경우 기본형태부의 의미를 변화시키지 않는 조건에서 앞에 오는 비위치토인 복수로 《들》과 그뒤에 도움토나 일부 다른 토들이 붙을수 있는 가능성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서술적단어에 붙은 기본형태부인 경우 기본형태부의 의미를 변화시키지 않는 조건에서 앞에 오는 비위치토들인 상토, 존경토, 시간토와 그뒤에 오는 비위치토들인 도움토나 일부 다른 토들이 붙을수 있는 가능성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이때 뒤형태부로 올수 있는 토들은 자립적인 토일수도 있고 자립성은 없지만 일정한 문법적의미를 나타내는 형태부일수도 있다.

서술적단어인 경우에 앞형태부에서 기본은 시간토이고 상토와 존경토는 중요한 조건이 되지 못하므로 일부 경우에 무시할수 있다.

실례로 토 《며, 면서》는 다같이 기본의미가 《동시》의 의미를 나타내고 부차적의미로 《선후》의 의미도 나타내는 토들이기때문에 비위치토들인 시간토와 결합하여 토 《며》는 《선후》의 의미를 강조할수 있지만 토 《면서》는 결합이 전혀 불가능하므로 일반적인 《선후》의 의미만을 나타내게 된다.

또한 말법, 인칭과의 관계를 잘 알도록 하여야 한다.

동의적의미를 나타내는 토들은 말법과 인칭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실례로 접속토 《더니》는 《선후》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2인칭과 3인칭에서만 쓰이

고 1인칭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즉 동의적의미를 이해하는데서 이러한 경우도 무시할수 없으므로 모든 동의적의미를 나타내는 토들을 말법과 인칭에 따라 정확히 선택하여 쓰도록 하는데 주의를 돌려야 한다.

품사와 비위치도에 비해 이 선택조건은 동의적의미를 이해하는데서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토들은 이 선택조건이 서로 다른것으로 하여 토의 동의적의미를 이해하는데 일정한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다.

외국인들에 대한 조선어교육에서 토를 정확히 인식시킬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넷째로, 같은 계열을 이루는 토들을 묶어서 그 의미를 리해시켜야 한다.

조선어에는 일정한 계열을 이루면서 서로 다른 토로 쓰이는 토들이 있는데 이러한 토들은 어느 하나의 형태가 동일하며 그 의미에서도 일정한 공통점을 가지고있으므로 차이점만을 리해시키면 된다.

여기에는 《려, 면, 라, 자》와 《더, 느라, 기》와 같은 계열형태들이 속한다.

실례로 토 《려》의 계열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토구분	《려》의 계열형태
1차 결합 형태	종결토	렵니다, 령디다, 려오, 려네, 려다, 려는구나, 려는군, 려는구만, 려는구려, 려는가, 려나, 려느냐, 려니, 려디까, 려더라, 려더구나, 려더군, 려더가, 려더나
	접속토	려는데, 려니, 려다가, 려거나, 려면, 려거든, 려야지, 려던데, 려들, 려죽
	규정토	려는, 려던, 려다는
	도움토	려는커녕
2차 결합 형태	접속토+도움토	려고도, 려고는, 려고만
	접속토+복수토	려고들
	규정토+상황토	려는듯, 려는듯이, 려든듯이, 려든듯
	종결토+격토	려는가를
기타		려는가부다, 려는자들이, 려는것들이, 려는것들을

《려》계열형태에 속하는 토들은 다 자기의 자립적인 의미를 가지고있지만 공통적으로 토 《려》가 나타내는 《의도》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있다. 이러한 계열형태들을 선택하여 토들의 의미를 리해하는것은 보다 쉽게 많은 토들을 리해하는 방법으로 될수 있다.

우에서 제시된 네가지 방법가운데서 세번째 방법이 어렵지만 이 네개의 방법들은 일정한 순차성을 가지고있으므로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리해하는 식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즉 네가지 방법을 차례로 다 리해하는것이 조선어의 토들을 보다 빠르면서도 쉽게 습득할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 조선어의 토들을 더 쉽게 리해할수 있는 방법들을 더 많이 연구하여 조선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에 대한 교육방법을 더 완비해나가야 할것이다.